

## 2023 년 4 월 9 일 “(부활절) 부활의 산 소망”(벧전 1:3-4)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것인데, 이에 따르는 걱정 불안도 사람만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사랑을 어렵게 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1] 그 크신 자비로

사람은 걱정 불안에 쌓이면 하나님은 그것이 죄의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인도하심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등지자, 사람과 피조계가 질서/조화를 잃는 바람에 하나님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 [2] 사랑하시는 증거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을 때 어떤 제자도 그분을 이해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옳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모든 사람이 취하도록 예비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믿는 자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채워질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습니다. 그 생명은 서로 사랑함, 마음이 교통하는 하나됨, 치유, 회복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의 산 소망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내용과 뜻을 갖습니까?
2.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게도 부활의 생명이 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